



포토홈

**'시리아 난민 꼬마' 해변에서...베를린서 유비호 작가 작품전**

(베를린=연합뉴스) 이광빈 특파원 = 19일(현지시간) 독일 베를린 소재 국제 예술가 레지던시 '퀸슬틀러하우스 베네티엔'에서 지난해 참여 작가로 선정돼 작품 활동을 해온 유비호 작가의 작품전이 열리고 있다.

2015년 세살짜리 시리아인 아이가 싸늘한 시신으로 발견된 터키 휴향지 해변을 배경삼은 작품을 전시하고 있다. 유 작가는 내달 1일부터 주독 한국문화원에서도 전시회를 연다. 2018.1.20

lkbin@yna.co.kr

<저작권자 (C) 연합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2018/01/20 08:00 송고

HELLO PHOTO 국내 최대 규모 사진 아카이브 서비스 >



고 김용균 씨 어머니 김미숙 씨, 굴뚝 희망버스 문화제 참석

12-29 15:3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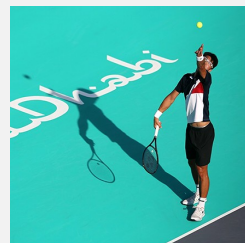
다시 훈련 시작한 '팀킴'

12-29 15:56



서울 남북정상회담을 소망하며

12-29 15:06



서브 넣는 정현...세계 8위 완파하며 무바달라 챔피언십 5위

12-29 15:20



2차 교섭 입장 밝히는 김세권 스타플렉스 대표

12-29 10:24